

반된 재생 세포가 대단히 큰 핵과 핵인을 보였다. 나머지 양성 병변 중 29 예는 양성으로 진단되었고, 부적절한 표본이 악성에서보다 많은 14 예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침윤성 도관암의 세포학적 소견에는 변동이 있으나, 이것이 조직학적 유형과는 관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비정형성 세포가 보이는 불확실한 표본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 악성 또는 양성의 특징을 찾아내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9. 유두상 림프종성 낭선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usum (Warthin's Tumor)

김남훈, 박찬금, 이종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usum (PCL)은 1929년 Warthin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된 종양으로 특징적인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과 아울러 그 흡인 세포 도말소견도 매우 진단적이다. 이 종양은 남성에 호발하여 대개 다발성이다. 10~15%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거의 대부분 이하선에서 발생한다.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로 진단되고 적출 후 조직학적 검사로 확인된 PCL 4예의 흡인세포학적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남성이 3예, 여성이 1예였으며 평균연령은 57세였다. 3예가 이하선, 1예는 악하선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두 단일성 그리고 단측성으로 발생한 종양이었다. 4예 중 3예는 흡인 세포도말검사상 PCL로 진단하였으나 1예는 남성액만 도말표본에서 관찰되어 진단할 수 없었다. 진단가능한 3예는 중등도 내지는 고도의 세포 성분이 도말되고 도말 배경은 과립형의 남성액 및 적혈구와 함께 다수의 림프구가 혼재되어 관찰되었다. 이와 아울러 판상의 군집을 이루는 상피 세포가 관찰되었다. 종양 세포는 둥글거나 난원형 또는 다각형이었으며 그세포질은 호산성이며 과립성이었다. 핵은 비교적 균일 하였으나 간혹 그 크기의 다양성이 관찰되었으며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고 섬세한 염색질을 갖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포말성의 세포질을 갖는 상피 세포도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PCL은 매우 진단적인 흡인세포학적 소견을 보이는 종양으로 고형성 부위에서 흡인 도말된다면 100%의 정확한 진단율을 보이는 종양으로 생각된다.

## 10. 구개 침샘에서 발생한 다형성 저악성 선암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Polymorphous Low-grade Adenocarcinoma of Palate

박찬필, 박문향, 이종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다형성 저악성 선암종(polymorphous low-grade adenocarcinoma, PLGA)은 대부분이 작은 침샘

(minor salivary gland) 에서 발생하며, 구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58.6%이나 전체 원발성 상피성 타액선 종양의 약 3%를 정도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 보고에 따라서 발달관 암종, 소엽성 암종, 유두상 암종과 육주상암종 등의 이름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종양의 조직학적 다양성과 생물학적 성상을 따라 PLGA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PLGA의 세포학적 소견은 매우 드물게 기술되어 있다.

저자들은 33세 여자 환자로 좌측 구개에 종괴가 3개월 전부터 발생하여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진단후 생검으로 확인되어 절제한 PLGA 1예를 경험하여 그 세포학적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세포성분은 중등도로 도말되었고 크고 작은 세포 군집들이나, 각각의 세포로 산재되어 있었다. 세포군에서는 작은 선방을 형성하거나 유두상 배열을 보이며 세포 크기는 일정하나 약간의 다형성을 보였다. 커다란 종괴로 도말된 곳에서는 가는 모세혈관들이 분지되고 약간의 초자양 기질이 보였다. 이런 가지 끝에 비교적 일정한 입방형 상피세포들이 군집으로 매달려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입방형의 세포들은 대개 중등도의 연한 호산성 세포질을 가지며 구형이나 난원형의 핵은 얇은 핵막과 섬세한 염색질이 보이고 간혹 핵을 가로 지르는 주름이 관찰되었다. 핵소체는 뚜렷치 않았으나 간혹 작은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핵분열이나 괴사성 배경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 후 생검 및 절제된 조직은 구개 점막 직하에 1.5×1×1 cm 크기의 부분적으로 침윤성을 보이는 PLGA로 확진되었다.

## 11. 방광의 순수 평편 상피세포암종 2예 Pure Squamous Cell Carcinoma of Urinary Bladder - Report of 2 Cases -

강정희, 서강석, 이선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방광의 편평 상피세포암종은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전 방광암종의 약 1.5% 내지 6.5%를 차지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이행 상피세포암종 또는 선암종에 동반되기 때문에 순수한 평편 상피세포암종은 대단히 드물다. 이런 순수 편평 상피세포암종의 진단은 재구축학적 관찰을 하여야만 비로서 확진할 수 있으며 보통 외과병리학적, 또는 세포학적 방법들로는 확진하기가 어렵다.

연자들은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고, 방광의 재구축학적 검사로 확진된 순수 평편 상피세포암종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1은 55세 남자로서 1개월간의 혈뇨, 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 받았다. 방광경 검사상 우측 요관 입구에서 용종상 종괴가 관찰되어 환자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진단 당시 stage T3b, N1, Mo 였다.

중례 2는 73세 남자로서 5개월간의 혈뇨와 배뇨곤란으로 내원하여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받았으며, 방광경 검사상 유두상 종괴가 우측 요관 입구 주변에서 관찰되어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진단 당시 stage T3a, N1, Mo 이었다.